



The Taming of the Shrew

말괄량이 길들이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 수록
체력적으로 뭐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 일을 해 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죠.

뭐든,
시작해 봐야지”

2021 삼성화재 캠페인 '건강관리의 시작' 중



건강관리의 시작이 쉬워지도록
삼성화재 애니핏



국립발레단 제186회 정기공연

The Taming of the Shrew

말괄량이 길들이기

2021.06.15(화) - 06.20(일)

Weekdays(평일) 19:30 | Sat(토) 15:00 19:00 | Sun(일)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음악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Domenico Scarlatti
편곡 쿠르트 하인츠 슈톨체 Kurt Heinz Stolze 안무 존 크랭코 John Cranko
스태이징 필립 바란키에비치 Filip Barankiewicz, 비르깃 데하르데 Birgit Deharde
Supervised by 리드 앤더슨 Reid Anderson 무대 및 의상 엘리자베스 돌턴 Elisabeth Dalton
조명 스티븐 비야케 Steen Bjarke Copyright 디터 그라프 Dieter Graefe
지휘 제임스 터글 James Tuggle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Kang Suejin 출연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공연시간 | 125분(1막 55분 / 휴식 20분 / 2막 50분)

125min(1st act 55min / Intermission 20min / 2nd act 50min)

국립발레단 초연 | 2015년 4월 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Premiered on April 29, 2015 by the Korean National Ballet at Opera Theater, Seoul Arts Center



목차

- 04 국립발레단 소개
- 05 작품소개
- 06 안무가
- 07 등장인물
- 08 시놉시스
- 14 에세이
- 16 무용수와 함께 만나는 <말괄량이 길들이기>
- 22 캐스팅
- 30 국립발레단 무용수
- 36 음악
- 37 프로덕션 스태프
- 39 국립발레단 예술 스태프
- 42 지휘
- 43 연주
- 44 국립발레단 이사진 및 자문위원
- 45 국립발레단 후원회
- 46 만든 사람들





국립발레단 소개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 약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무용수와 안무가, 그리고 훌륭한 예술감독과 작품 덕분에 국립발레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 최정상 무용수 80여 명과 세계적인 명작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대표적인 전막 작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 파트리스 바르의 <지젤>, 마르시아 하이데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베 솔츠의 <교향곡 7번>, 글렌 테틀리의 <봄의 제전>, 조지 발란신의 <세레나데>, 크리스티안 슈퓹의 <안나 카레니나>, 레나토 자넬라의 <마타 하리>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클래식 발레에서 모던 발레, 네오클래식 발레, 드라마 발레 등 폭넓은 장르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고유의 창작 발레 레퍼토리 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각각 설화와 고전시를 배경으로 한 <왕자호동>, <허난설한 수월경화>등이 대표작이다. 2019년 발표한 신작 <호이랑> 역시 한국적 이야기를 서양의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한국 창작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립발레단의 고유 레퍼토리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2015년부터 시작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인 <KNB Movement Series>를 통해 단원들이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신진 안무가 발굴을 통한 무용수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탄탄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립발레단의 레퍼토리 개발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국내 발레의 대중화라는 큰 의무를 위해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가는 지역공연',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해외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작품소개

발레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코미디 발레이다. 존 크랭코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월가닥 카타리나와 그녀를 현모양처로 길들이려는 페트루키오의 팽팽한 공방전을 발레 무대로 생생하게 옮겨왔다. 슈투트가르트발레단 프리마돈나였던 마르시아 하이데와 리처드 크레이건이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초연에서 각각 카타리나와 페트루키오 역을 맡았다.

존 크랭코는 탁월한 내적 심리 묘사로 호평을 받는 안무가로, 무용과 연기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발레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표적인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도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인물 묘사를 통해 관객들과 무대를 초월하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여주인공 카타리나는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닌 솔직하고 거침없는 언동으로 그녀를 길들이는 페트루키오와 대립하며 그의 사랑을 깨닫고 말괄량이에서 현숙한 여성으로 변모하는 폭넓은 감정 변화를 보여 준다.

크랭코의 여러 발레 작품에서처럼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다양한 조연들의 맛깔스러운 연기가 관객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카타리나의 여동생이며 몇 남성들의 구애를 받는 어여쁜 비앙카는 겉으로는 정숙한 오조숙녀이지만 사실은 내성백단의 여우로 카타리나와는 상반되는 여성성을 보여 주는 조연 캐릭터이다. 카타리나와 비앙카의 대조되는 여성성을 통해 그레이미오, 호르텐시오 그리고 비앙카의 남편 루첸시오를 비롯한 남성 관객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전달한다. 이외에도 말 많고 탈 많은 두 딸의 아버지 바티스타와 페트루키오에게 조롱당하는 주례이자 마을의 신부 역시 유쾌한 유머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 페트루키오는 박력 넘치는 두 개의 솔로 발리에이션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잇따라 펼쳐지는 익살스럽고 감동적이며 인간적인 세 개의 파드되는 관객들로 하여금 막이 내릴 때까지 두 주인공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활기찬 음악과 쿠르트 하인츠 슈톨체의 관현악 편성 그리고 엘리자베스 돌턴의 형형색색의 의상과 중세 이탈리아의 정원 풍경이 아름다운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는 가족 발레이다.



안무가



존 크랭코 | John Cranko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설립자, 안무가

1927년 8월 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에서 태어난 존 크랭코는 케이프타운대학에서 무용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첫 번째 안무작인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를 창작하기도 했다. 1946년 런던의 새들러스 웰스 학교를 이수한 뒤 새들러스 웰스 발레단(現 로열 발레단)에 입단했다.

1947년 크랭코는 새들러스 웰스 발레단의 의뢰로 드뷔시의 <어린이의 세계>를 안무했으며, 1949년부터는 안무에 집중해 여러 작품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1955년 파리오페라발레단을 위해 <아름다운 엘렌>을 안무했으며, 1957년 로열발레단의 의뢰를 받아 전막 발레 <파고다의 왕자>를 창작했다. 1961년 그는 뷔르템베르크 주립극장 이사장의 부름을 받아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크랭코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초기에 소품 발레를 주로 안무했으며, 에곤 마센, 리처드 크레이건, 비르기트 카일 그리고 마르시아 하이데 등과 같은 무용수들을 영입했다. 특히 브라질 출신의 발레리나 마르시아 하이데는 그의 뮤즈가 되어 많은 영감을 주었다.

대표작
<말괄량이 길들이기>
<오네긴>
<로미오와 줄리엣>
<불쇼이의 오마주>
<이니셜 R.B.M.E.> 등

1962년 12월 그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초연해 비평가들과 관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며 안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카드게임>, <오퍼스1>, 교향곡 발레 <이니셜 R.B.M.E> 등과 같은 소품 발레작품을 안무했으며 <오네긴>, <말괄량이 길들이기>, <법열의 시>, <트레이시스> 등과 같은 드라마 발레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안무가로서 자리를 공고히 했다. 또한 크랭코는 이ერი 킬리안, 존 노이마이어나와 같은 젊은 무용수들이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1969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투어에서 크랭코는 천부적인 스토리텔링 능력, 깔끔한 구성력 그리고 정교한 안무로 뉴욕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곧이어 전 세계가 존 크랭코와 그가 이끄는 젊은 발레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크랭코는 슈투트가르트시에 정착한지 10년이 되어 재능 있는 어린 무용수들이 프로 발레단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 1971년 12월 1일 개교한 존 크랭코 학교는 재능 있는 어린 무용수들이 프로 발레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훗날 프로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설로서 서독 정부로부터 최초 인가를 받은 전문 무용 교육 기관이다. 현재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절반 정도가 존 크랭코 학교의 졸업생들이다.

크랭코는 1973년 6월 26일 45세에 나이로 미국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12년이라는 짧은 그의 임기 동안 그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세계 정상의 무용수를 갖추며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이 세계 발레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도약할 초석을 다졌다.

등장인물



카타리나

소년난 말괄량이

심술궂은 언행으로 유명한 말괄량이지만 페트루키오를 만나 현숙한 여인으로 변모한다.

페트루키오

카타리나 남편

말괄량이 카타리나 못지않은 거침없는 행동으로 그녀와 결혼하는 데 성공한다.



비앙카

내송백단 요조숙녀

언니 카타리나와 달리 내송백단의 요조숙녀로 동네 청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루첸시오

비앙카의 남편

연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비앙카와 결혼한다.



그레미오&호르텐시오

동네 청년들

비앙카의 가정교사로 변장하여 비앙카에게 구애한다.

맘티스타

카타리나와 비앙카 아버지

두 딸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아버지. 카타리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 카타리나를 먼저 결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1막

1장 | 밥티스타의 저택 외부

호르텐시오, 루첸시오, 그레미오 세 명의 구혼자는 담벼락에서 비앙카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다. 갑자기 비앙카의 언니 카타리나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며 그들의 구애를 방해한다. 카타리나의 언행에 크게 실망한 아버지 밥티스타는 비앙카의 구혼자들에게 카타리나가 결혼할 때까지 비앙카를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카타리나의 난동으로 동네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화가 난 동네 주민들은 상심에 빠진 구혼자들을 쫓아낸다.



2장 | 술집

카타리나에게 혼쫓이 난 세 명의 구혼자들이 차례로 술집에 들어선다. 이때 옆 테이블의 페트루키오는 술에 취한 채 작부들의 꼬임에 빠져 빈털터리가 된다. 호르텐시오, 루첸시오, 그레미오는 술에 취한 페트루키오를 보고 작당해 말괄량이 카타리나와 결혼시킬 모의를 한다. 그들은 페트루키오에게 카타리나와 결혼하면 큰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꼬시고, 술에 취한 페트루키오는 이를 흔쾌히 승낙한다.





3장 | 밥티스타의 저택

어여쁜 비앙카가 미래의 남편을 상상하며 사색에 빠져 있다. 심술궂은 카타리나가 나타나 비앙카를 '양꿈한 계집애'라고 부르며 방해한다. 이때 비앙카의 가정교사로 변장한 호르텐시오, 루첸시오, 그레이미오가 밥티스타의 저택을 방문하고, 페트루키오는 카타리나에게 청혼한다. 카타리나는 페트루키오의 거만한 태도가 불쾌해 더욱 제멋대로 굴지만 그의 알 수 없는 매력에 끌려 결국 청혼을 승낙한다. 호르텐시오, 루첸시오, 그레이미오는 각각 음악교사, 무용교사, 가정교사로 변장해 비앙카에게 구애하고 비앙카는 루첸시오와 사랑에 빠진다.

4장 | 카타리나의 결혼식 가는 길

카타리나의 결혼식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식이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르텐시오, 루첸시오, 그레이미오는 비앙카와 결혼할 상상을 하며 하객 행렬을 뒤따른다.

5장 | 밥티스타의 저택

카타리나는 곱게 단장하고 신랑 페트루키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식이 시작되도록 신랑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페트루키오가 뒤늦게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카타리나를 어깨에 들쳐메고 피로연이 시작되기 전 결혼식장을 유유히 떠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2막

1장 | 페트루키오 집으로의 여행

신혼부부는 폭우를 뚫고 신랑 페트루키오의 집으로 향한다. 폭우에 흠뻑 젖은 카타리나는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페트루키오의 집에 도착하지만, 페트루키오는 음식이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먹지 못하게 한다. 화가 난 카타리나는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거부하고 주방 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긴 밤을 보낸다.



2장 | 축제

루첸시오는 술집 작부들에게 비양카처럼 변장해 두 명의 연적, 호르텐시오와 그레미오를 유혹할 것을 제안한다. 호르텐시오와 그레미오 앞에 비양카처럼 변장한 요령의 여인이 나타나 유혹하자 그들은 그녀가 비양카라고 확신하고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이 루첸시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결혼을 무르키에는 이미 늦었다.



3장 | 페트루키오의 집

페트루키오가 계속 약을 올리자 카타리나는 더욱 격렬하게 반항하지만, 춤고 굶주린 그녀는 결국 페트루키오에게 항복하고 만다. 그러나 차츰 페트루키오가 멋있고 재미있는 남자라는 것을 발견한 카타리나는 그와 사랑에 빠진다.



4장 | 비앙카의 결혼식 가는 길

페트루키오는 카타리나에게 마음껏 변덕을 부리지만 카타리나는 이를 즐겁게 여긴다.



5장 | 비앙카의 결혼식

비앙카는 그레이미오와 호르텐시오의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남편 루첸시오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카타리나는 정숙하고 순종적인 현모양처로 변신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아내의 역할에 대해 훈계한다. 그레이미오와 호르텐시오는 결혼이 항상 축복만은 아님을 깨닫고 루첸시오 역시 비앙카가 상상했던 천사 같은 아내가 아님을 알게 된다. 모두가 떠난 뒤 카타리나와 페트루키오는 사랑을 속삭인다.

“여성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지어다.”



시놉시스

ACT I



Scene 1. Outside Baptista's House

Hortensio, a fop, Lucentio a student, and Gremio, an elderly roué, serenade the beautiful Bianca. Their love songs are brusquely interrupted by Katherina, Bianca's older sister. Their father Baptista explains to the suitors that Kate, as the elder of his two daughters, must marry first. Neighbours, awakened by the noise, chase the thwarted lovers away.

Scene 2. A Tavern

Petruccio, a gentleman of more generosity than means is stripped of his last penny by two ladies of the streets. Bianca's three suitors suggest that he might be interested in the charms and the fortune of Katherina. He agrees.

Scene 3. Inside Baptista's House

Bianca muses about her preferences among her three suitors; she is interrupted by a jealous outburst from Katherina who calls her a scheming flirt. This dispute is interrupted by the arrival of Petruccio accompanied by Gremio, Lucentio and Hortensio, disguised as teachers of singing, dancing and music. Petruccio is none too favourably received by Katherina. Alone with Bianca the suitors doff their disguises and continue their wooing in the form of lessons. Bianca soon recognizes Lucentio as the most desirable. Katherina reacts violently against Petruccio's protestations of passion, thinking that they are a false mockery, but something in his manner convinces her enough to agree to the marriage.

Scene 4. A Street

The neighbours, on their way to Katherina's nuptials, treat the matter as a huge joke. The three suitors join them, now in high hopes that Bianca will soon be won.

Scene 5. Baptista's House

The guests have arrived. Katherina is in her bridal array, but the bridegroom appears to have forgotten the day. When he does appear, in fantastic garb, Petruccio misbehaves, ill-treats the priest, and carries-off the bride before the wedding festivities have begun.

ACT
II



Scene 1.

The journey to Petrucchio's house

Petrucchio proceeds with his taming of Katherina by extinguishing the fire and finding fault with the food. Katherina spends a hard, cold, hungry night.

Scene 2.

The Carnival

A masked and cloaked stranger appears to Hortensio and Gremio during the carnival. Both of them, believing her to be Bianca, are only too eager to take their marriage vows. Too late they discover that they have been duped and married the two ladies of the streets, suitably briefed, bribed, and disguised by Lucentio.

Scene 3.

Petrucchio's house

Katherina is still hungry and freezing. Although Petrucchio continues to tease Katherina, her weary resistance finally crumbles and she capitulates to her master; only to find that Petrucchio is a kinder, wittier husband than she has imagined.

Scene 4.

The journey to Bianca's wedding

Petrucchio indulges in a few more whims and fancies, but Katherina has learned her lesson, and joins in the fun.

Scene 5.

Bianca's wedding

Gremio and Hortensio have found out that the joys of marriage are a mixed blessing, and even Lucentio has reason to fear that Bianca is not the angel that she appeared to be. Katherina, on the other hand, and to everybody's astonishment, turns out to be the truest, most obedient, most loving of wives. Which only goes to show that women are not always what they appear to be, or never judge a book by its cover.

닫히지 못한 이야기, 〈말괄량이 길들이기〉

김일송 | 공연칼럼니스트

며칠 전, 이제 막 초등학교가 된 아들에게 동화 한 권을 읽어주었다. 동화는 성질이 사나운 여성이 자신보다 더 성질 사나운 남성을 만나 순종적인 여성으로 길드는 내용이었다. 책을 읽던 중 몇 번이나 책을 덮을 뻔했다. 마지막 장을 덮고 아들에게 말했다. 요지는 “누군가를 교화하겠다는 목적도 불순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고매하더라도 저런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물론 거부장적 가치관에도 동조할 수는 없다. 이는 당대의 성 평등 의식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느낄 것이다.

이 동화는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원작 희곡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간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이미 경험한 내용은 동화와 비슷했다. 동화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원작 또한 여러 측면에서 비판 가능한데, 이러한 비판이 비판 최근의 일만은 아닌 듯하다. 1897년 조지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대해 “점잖은 취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자와 함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작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셰익스피어와 동시대를 살았던 후배 작가인 존 플레처(John Fletcher)에 의해서도 반박당했다.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발표되고 근 20년이 지나 존 플레처는 그 속편 격으로 <여성의 승리, 길들이던 자 길들이기>(The Woman's Prize, or The Tamer Tamed)를 발표했다. 희곡에는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남자 주인공 페트루키오가 그대로 등장한다. 이야기는 자신이 길들이 카타리나와 사별한 페트루키오가 후처 마리아에 의해 길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성차별적 작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을 보긴 했어도, 원작 희곡을 읽을 필요까지 느끼지는 못했다. 원작을 제대로 읽은 건, 원고청탁을 받은 후의 일이다. 청탁을 수락하면서도 이 작품의 미덕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다. 그러나 결론을 당겨 말하면, 저런 선입견은 원작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젠더 이슈에서 논쟁적인 작품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았다. 원작에는 어느 영주가 고주망태 주정뱅이를 골리는 프롤로그가 달려있다. 술 취해 굶아떨어진 땀장이 슬라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영주는 슬라이를 대공으로 대접하며, 슬라이의 실제 삶을 병을 앓으며 얻은 허상이라 속인다. 익히 알려진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야기는 슬라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랑극단이 벌이는 극중극으로 등장한다.



극중극만 보면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강요하는 봉건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극중극이라는 렌즈를 한 겹 겹치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진다. 모든 이야기는 슬라이라는 주정뱅이를 골리기 위한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앞선 해석과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슬라이는 영주에 의해 길들여지고, 카타리나는 페트루키오에 의해 길들어진다. 계급적으로 읽으면, 지배 권력에 의해 정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상실하는 이야기로 읽을 여지도 생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리려면, 극중극을 여닫는 자물쇠가 필요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문을 닫아놓는 일을 잊어버린 듯하다. 극중극을 여는 프롤로그는 존재하지만, 극중극을 닫는 에필로그가 없기 때문이다. 원작에는 일장춘몽을 꾸는 슬라이가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

이 작품을 여성 혐오 작품으로 읽을 수 없다는 또 다른 주장도 있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 여성에게 마지막 대사가 주어린 작품은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대사는 작가가 관객들에게 남기고픈, 작품 전편을 통해 가장 여운이 긴 대사다. 셰익스피어는 이 대사를 카타리나에게 주었다. 마지막 연설은 카타리나가 다른 여인들에게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를 훈계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아연할 관객이 여럿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대사는 극단적인 과장을 통해 당대의 가치를 비판하는 대사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말괄량이 길들이기> 속 남성 인물들은 한결같이 좀 후지다. 카타리나의 아버지는 욕심 가득한 장사꾼처럼 등장한다. 그는 마치 재고상품을 떨어판매하듯 카타리나를 페트루키오에게 시집 보내는 한편, 둘째 딸은 '가장 많은 재산을 줄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페트루키오도 영락없는 속물이다. 그는 재산에 눈이 멀어 카타리나에게 청혼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카타리나를 길들인다. 작품 속 남성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영리한 수법으로 당대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오늘날에도 공연되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9년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새로운 해석을 선보였다. 저스틴 오디베르 연출은 젠더 플리핑을 통해 작품의 세계를 가부장 사회로 전환하고 남녀의 역할을 바꾸는 전복적인 세계(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립발레단의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있다. 그동안 원작을 읽지도 않은 채, 막연히 전근대적 작품이라 오해해 극장을 찾지 않았지만, 이제 색안경을 벗고 작품을 관람해야겠다. 모든 것이 나의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겠다.

무용수와 함께 만나는 <말괄량이 길들이기>



박슬기 마을에서 가장 괴팍하다고 소문난 사랑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여자! 그러나 페트루키오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카타리나의 착하고 순수한 본성이 나옵니다. 카타리나가 점차 변해가는 과정과 페트루키오라는 남자에게 점차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1막 마지막에 자신도 모르게 페트루키오에게 끌리는 모습을 담은 카타리나의 연기가 그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관객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승원 감정 표현이 서툰 말괄량이 카타리나가 페트루키오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되고 서서히 변화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제가 표현하는 카타리나의 감정 변화를 눈여겨 봐주세요.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관람하러 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한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리희 우아한 발레리나가 아닌 천방지축 알가닥으로 변신한 저만의 카타리나 기대해주세요. 춤을 발레로 보여주기 보다는 재미난 이야기를 발레로 풀어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보이는 그대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Petruccio
페트루키오

김기완 안녕하세요. 이번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페트루키오 역할을 맡은 김기완입니다. 인물들의 개성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작품인 만큼 많은 관객분들께서 이 희극 발레를 다양한 감정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우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카타리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왁자지껄 대소동 속에서 그녀와 페트루키오 사이에 아주 조금씩 피어오르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장면에서 서로가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페트루키오가 카타리나에게 자신의 마음 조금씩 던지며 커져가는 애정을 눈여겨보세요~)



박종석 제가 맡은 페트루키오는 괴짜이고 심술쟁이이지만, 재치 있고 끈기도 있는 양면을 가진 남자입니다. 설 새 없이 이어지는 희극적인 장면과 2막 마지막에 나오는 파드퇴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예은 비앙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스운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역할이에요. 카타리나 언니와 비앙카 동생이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수시로 나오니 관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짜 친언니와 친동생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심현희 이번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비앙카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연습했던 부분은 비앙카가 세 명의 구혼자들과 함께 춤추는 장면인데요~ 그 이유는 구혼자들이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눈맞춤을 하고 춤추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매력적인 역할이 누구일지 찾아보세요~



곽화경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신이 또 얼마나 예쁜지 아는 내숭쟁이인 비앙카는 언니인 카타리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언니 옆에서 얼마나 알뜰하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루첸시오를 질투하는 그레미오와 호르텐시오의 깨알연기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조연재 제가 맡은 비앙카 역은 사람들에게 예쁨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랑스럽고 귀여운 둘째 딸입니다. 카타리나와는 정반대되는 캐릭터를 주목해 주시면 작품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장면은 2막 카니발 파드티를 추천합니다!

허서명 루첸시오는 발레교사로
위장해 비앙카에게 접근하는 캐릭터
입니다. 발레교사로 위장하였기 때문
에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어느정도
발레 기본에 충실하며 공연을 하는
젠들한 캐릭터입니다.

하지석 루첸시오는 비앙카를 노리는 트리오 중 가장 우아한
캐릭터예요. 2막 카니발 장면에서 나오는 루첸시오 솔로와 그 뒤에
이어지는 비앙카와 추는 파드되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파드되를 먼저 하고 솔로를 하는 게 정석일 텐데 이 작품은
반대로 하거든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Lucentio
루첸시오



김태석 그레미오와 호르텐시오, 루첸시오
이 세 명이 비앙카에게 자신을 뽐내는 장면들과
그 중, 가장 멋지게 자신을 뽐내는 루첸시오가
비앙카와 이루어지는 과정을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동현 제가 생각하는 루첸시오는 밝고 명랑하지만
비앙카를 향한 마음은 진지하고 또 굉장히 영특한 인물
입니다. 그래서 그가 호르텐시오와 그레미오를 제치고
비앙카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 역할의 재치
있는 연기와 케미를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르텐시오, 그레미오, 루첸시오가 서로 비앙카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장기를 뽐내는 장면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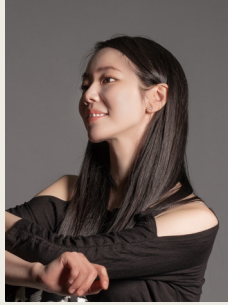
카타리나

KATHERINA



박슬기 Park Seulki

- 학력**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 경력**
2007 국립발레단 입단
- 수상**
2006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2006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3위
2007 중국 상하이 국제발레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2007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금상
2007 헝가리 부다페스트 초청 갈라 평론가상, 관객상
2009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2009 한국발레협회 신인상
2012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2017 한국춤비평가협회 출연기상
2017 러시아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무용수상 노미네이트
2019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상 표창
- 안무작**
2016 < Quartet of the Soul >
2018 < Smombie >
2020 < From a Human Being >



김리희 Kim Lihoe

- 학력**
2006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 경력**
2006 국립발레단 입단
- 수상**
1999 일본 후쿠오카 국제무용콩쿠르 5위
2002 한국발레협회콩쿠르 금상
2004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베스트 파드되상, 심사위원상
2005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주니어 1위
2008 한국발레협회 신인상
2009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시니어 은상
2010 러시아 아라베스크 국제발레콩쿠르 베스트커플상, 막시모바상
2010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신승원 Shin Seungwon

- 학력**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2016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졸업
- 경력**
2009 국립발레단 입단
- 수상**
2003 스위스 로잔 국제무용콩쿠르 최연소 파이널리스트
2006 러시아 바가노바 국제발레콩쿠르 두딘스카야상, 베스트커플상
2006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2007 미국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동상
200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초청 공연
2010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10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위
2013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2020 (사)창무예술원 제26회 무용예술상 연기상
- 안무작**
2016 <The Natural>
2018 <시간에 달다>
2019 <Go your own way>

페트루키오

PETRUCCHIO



이재우 Lee Jaewoo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재학

경력
2011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09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2010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2010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위
2011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2014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15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금상
2015 한국발레협회 당최르 노브르상
2017 러시아 브누아드 라 당스
최고 남성무용수상 노미네이트



김기완 Kim Kiwan

학력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경력
2011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04 한국발레협회콩쿠르 특상
2006 동아무용콩쿠르 학생부 동상
2009 미국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특별상
2009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대상
2012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위
2014 한국발레협회 신인상
2016 한국발레협회 당최르 노브르상



박종석 Park Jongseok

학력
워싱턴 키로프 발레아카데미 수료

경력
2009 미국 워싱턴발레단 입단
2011 미국 펜실베이니아발레단 입단
2014 유니버설발레단 입단
2016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09 미국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3위
2013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동상
2014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금상
2020 한국발레협회 당최르 노브르상



박예은 Park Yeeun

학력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경력

2012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09 독일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상

2009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차석

2015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18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심현희 Sim Hyunhee

학력

2014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경력

2016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08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세미파이널

2009 한국발레협회콩쿠르 학생부 대상

2009 동아무용콩쿠르 학생부 금상

2010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주니어 은상, 모던작품상

2011 미국 유스 아메리카그랑프리 파드되 부문 금상

2011 이탈리아 시칠리아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 금상, 베스트커플상

2012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발레콩쿠르 시니어 은상

2012 미국 보스턴 국제발레콩쿠르 시니어 은상

2013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 금상

2013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프리마발레리나상

2013 프랑스 그라스 국제무용콩쿠르 파드되 부문 대상



곽화경 Kwak Hwakyung

학력

2018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경력

2014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12 대한무용학회 전국무용경연대회 대상

2012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금상

2013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파이널리스트

2014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파이널리스트

2017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조연재 Cho Yeonjae

학력

2018 세종대학교 무용과 졸업

경력

2018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16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3위

2016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2017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2017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20 한국발레협회 신인무용수상

루첸시오

LUCENTIO



허서명 Heo Seomyeong

학력

- 2013 세종대학교 무용과 졸업
- 2016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졸업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박사과정 재학

경력

- 2013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 2008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 2011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 2012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수석
- 2012 전국대학무용콩쿠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2015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은상
- 2015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 2017 한국발레협회 당식리 노브르상



하지석 Ha Jiseok

학력

- 2010 워싱턴 키로프 발레아카데미 졸업
- 2015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경력

- 2015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 2013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동상
- 2013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 2013 미국 뉴욕 발렌티나 코즐로바 국제무용콩쿠르 금상
- 2014 미국 잭슨 국제발레콩쿠르 베스트퍼플상
- 2021 한국발레협회 당식리 노브르상



김태석 Kim Taeseok

학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재학

경력

- 2016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 2013 프랑스 그라스 국제무용콩쿠르 대상



곽동현 Kwak Donghyeon

학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재학

경력

- 2018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 2014 동아무용콩쿠르 1등
- 2015 이탈리아 시칠리아 바로카 콩쿠르 1등
- 2016 뉴욕 발렌티나 코즐로바 콩쿠르 2등

캐스팅

배역/일정	6월 15일(화)	6월 16일(수)	6월 17일(목)
카타리나	박슬기	신승원	김리희
페트루키오	김기완	이재우	박종석
비앙카	박예은	심현희	곽화경
루첸시오	허서명	하지석	김태석
그레미오	김명규B	전호진	배민순
호르텐시오	변성완	김명규A	김준경
밥티스타	이수희		
작부들	박나리 정은영	강효형 최지인	박나리 정은영
신부님	강동휘		
하인	김명규A 최미레 전호진 박제현	김준경 배민순 김명규B 박제현	김명규A 최미레 전호진 박제현
파 드 시스	심현희 곽화경 심소연 송정빈 하지석 김태석	정은영 조연재 심소연 송정빈 허서명 곽동현	심현희 조연재 심소연 송정빈 허서명 곽동현
잠옷 입은 사람들	최지인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송정은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최지인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첫 번째 결혼식	강효형 최지인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배민순 곽동현 최미레 류제원 김준경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안수연 정은영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배민순 김태석 최미레 류제원 김준경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강효형 최지인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정의진 곽동현 최미레 류제원 김명규A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신부 들러리	김경림 김나연 서현이 민소정 김희선 황정예		
사육제 군무	김나연 민소정 기수지 김희선 고혜나 박서현 안수연 이윤희 강경모 류제원 이명현 허완 정의진 신연규 박지원 임진환		
두 번째 결혼식	김경림 김지현 김기령 이은서 김재민 서현이 이하연 정은지 류제원 강경모 박제현 허완 이명현 안성준 양준영 정의진		
술집 주인	전호진	김명규B	
결혼식 화동	김사랑 이서윤 임효린 이하은	김사랑 이서윤 임효린 이윤지	김사랑 이서윤 임효린 이하은
마부	임성철		
사육제 걷는 사람	남혜린 이자윤 한신형 박하은 심은솔 양희재 구현모 엄진솔		
펄프 남자	구현모		

6월 18일(금)	6월 19일(토) 15시	6월 19일(토) 19시	6월 20일(일)
박슬기	신승원	김리회	박슬기
김기완	이재우	박종석	김기완
조연재	박예은	심현희	곽화경
곽동현	허서명	하지석	김태석
김명규B	전호진	배민순	김명규B
변성완	김명규A	김준경	변성완
이수희			
강효형 최지인	박나리 정은영	강효형 최지인	박나리 정은영
강동휘			
김준경 배민순 전호진 박제현	김준경 배민순 김명규B 박제현	김명규A 최미레 김명규B 박제현	김명규A 배민순 전호진 박제현
정은영 곽화경 심소연 송정빈 하지석 김태석	심현희 곽화경 심소연 송정빈 하지석 김태석	정은영 조연재 심소연 송정빈 허서명 곽동현	심현희 조연재 심소연 송정빈 하지석 곽동현
송정은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최지인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송정은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최지인 이은서 민소정 기수지 이하연 원정윤 박유진 진솔아 최미레 류제원 박제현 허완 안성준 강경모 엄진솔 정의진
안수연 정은영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배민순 김태석 최미레 류제원 김명규A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강효형 최지인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정의진 곽동현 최미레 류제원 김준경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안수연 정은영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정의진 김태석 최미레 류제원 김명규A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강효형 최지인 김기령 심소연 이은서 김지현 기수지 김재민 박서현 정은지 이하연 김별 송정빈 배민순 곽동현 최미레 류제원 김준경 박제현 이명현 강경모 허완 안성준 양준영
김경림 김나연 서현이 민소정 김희선 황정예			
김나연 민소정 기수지 김희선 고혜나 박서현 안수연 이윤희 강경모 류제원 이명현 허완 정의진 신연규 박지원 임진환			
김경림 김지현 김기령 이은서 김재민 서현이 이하연 정은지 류제원 강경모 박제현 허완 이명현 안성준 양준영 정의진			
전호진	김명규B	전호진	
김사랑 이서윤 임효린 이윤지	김사랑 이서윤 임효린 이하은		김사랑 이서윤 임효린 이윤지
임성철			
남혜린 이자윤 한신형 박하은 심은솔 양희재 구현모 엄진솔			
구현모			

* 위 캐스팅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발레단 무용수

수석무용수 | PRINCIPALS



박슬기 Park Seulki



이재우 Lee Jaewoo



김리회 Kim Lihoe



신승원 Shin Seungwon



김기완 Kim Kiwan



박예은 Park Yeeun



허서명 Heo Seomyeong



박종석 Park Jong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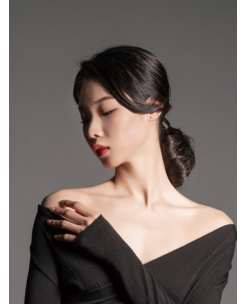
솔리스트 | SOLOISTS



이수희 Lee Soohee



송정빈 Song Jungbin



정은영 Jeong Eunyung



배민순 Bae Minsoon



한나래 Han N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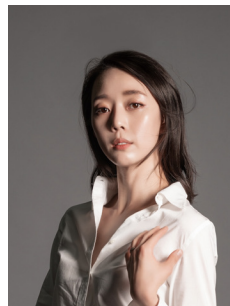
김희현 Kim Heehyun



변성완 Byun Seongwan



강효형 Kang Hyohyung



박나리 Park Nari



하지석 Ha Jiseok

국립발레단 무용수

드미솔리스트 | DEMI SOLOISTS



임성철 Lim Sungchul



김명규A Kim Myungkyu



김명규B Kim Myungkyu



선호현 Sun Hohyun



이유홍 Lee Yoohong



김성은 Kim Seongeun



심현희 Sim Hyunhee



김태석 Kim Tae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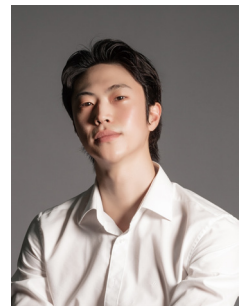
곽화경 Kwak Hwakyung



김희선 Kim Heesun



김지현 Kim Jihyeon



구현모 Ku Hyeonmo



김지희 Kim Ji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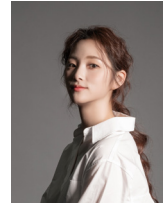
최지인 Choi Jeein



최미레 Choi Mire



김경림 Kim kyoungrim



고해나 Ko Hena



서현이 Seo Hyu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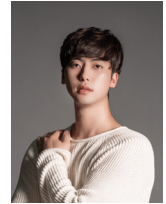
이은서 Lee Eunseo



김나연 Kim Nayeon



전호진 Jeon Hojin



강동휘 Kang Donghui



김기령 Kim Kir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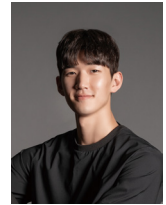
민소정 Min Sojung



기수지 Ki Suji



심소연 Shim Soyeon



류제원 Ryu Jewon



조연재 Cho Yeon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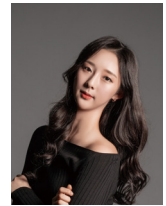
전정민 Cheon Jeongmin



김준경 Kim Junkyoung



김재민 Kim Jaemin



박서현 Park Seohyun



엄나운 Eom Na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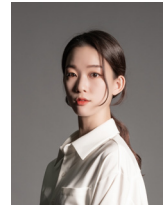
강경모 Kang Gyuongmo



곽동현 Kwak Donghyeon



박제현 Park Jehyun



이하연 Lee Hayeon



허완 Huh Wan



이명현 Lee Myeonghyun



안성준 An Seongjun



안수연 An Suyeon



양준영 Yang Junyoung



정은지 Jung Eunji

국립발레단 무용수

코르 드 발레 2 | CORPS DE BALLET 2



고진 Ko Jin



이윤희 Lee Yoonhee



원정운 Won Jung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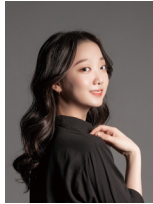
남혜린 Nam Heurin



박혜림 Park Hyerim



고세원 Ko Sewon



박유진 Park Yujin



엄진솔 Eum Jinsol



정의진 Jung Euijin



이지운 Lee Jayoon



임나영 Lim Nayoung



황정예 Hwang Jeongye



김별 Kim Byeol



송정은 Song Jeongeun



이지희 Lee Jihee



한신형 Han Shinhyoung



황수연 Hwang Suyeon



박지원 Park Jiwon



신연규 Shin Yungyu



임진환 Lim Jin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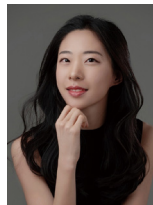
연수단원 | TRAINEES



박하은 Park Ha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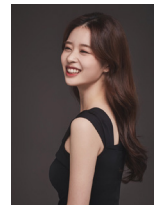
심은솔 Shim Eunsol



최은수 Choi Eunsu



진솔아 Jin Sola



양희재 Yang Heejae



김사랑, 이윤지, 이서윤, 이하은, 임효린



작곡가 Composer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Domenico Scarlatti

도메니코 스카를라티는 1685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에게 사사한 뒤 나폴리 왕립오케스트라의 작곡가와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다. 1703년 첫 오페라를 발표했고, 1714년 바티칸 카펠라 졸리아 교회의 음악감독이 되었다.

1720년 포르투갈 궁정의 음악감독이 되어 포르투갈 공주인 마리아 막달레나 바르바라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1727년 1월 28일 그는 리스본을 떠나 로마로 갔으며 그곳에서 결혼했다. 1733년에는 스페인 왕실과 결혼한 마리아 바르바라의 음악 교사로서 그녀를 수행해 마드리드로 가 정착했다(마리아 바르바라는 훗날 스페인의 왕비가 되었다). 스카를라티는 마드리드에서 7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와 같이 다양한 음악을 작곡했으나, 오늘날 주로 알려진 음악은 555곡에 달하는 <피아노 소나타>이다.

편곡가 Arranger



쿠르트 하인츠 슈톨체

Kurt Heinz Stolze

쿠르트 하인츠 슈톨체는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함부르크 콘서바토리에서 빌헬름 부뤼크너-뤼게베르크에게 피아노, 오르간 그리고 지휘를 사사했다.

코펜하겐 왕립오페라에서 지휘와 오페라 가수 코치로 첫 커리어를 시작으로 1957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발레 음악 및 오페라 코치가 되었다. <백조의 호수> 지휘, <조화와 영감> 편곡, <오네긴> 편곡 등 다수의 작품을 작업하며 존 크랭코의 가장 절친한 음악적 동반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라디오와 영화음악을 작업하기도 했다.

1969년 슈톨체는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음악을 발레 작품인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위해 편곡했으며, 같은 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미국 투어에 참여했다. 이듬해인 1970년, 뮌헨에서 세상을 떠났다.

프로덕션 스텝

무대 및 의상 Sets&Costumes



엘리자베스 돌턴

Elisabeth Dalton

엘리자베스 돌턴은 1940년 옥스퍼드에서 태어나 스리랑카로 이주해 차 플랜테이션에서 성장했다. 이후 영국의 워털랜드 예술대학에서 극장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런던 슬레이드 미술학교에서 니콜라스 게오르기아디스에게 사사했다. 1960년대 후반 게오르기아디스의 보조가 되어 루돌프 누레예프 버전의 <호두까기인형>(로열발레단)의 무대와 의상 작업을 했다.

1968년 그녀는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존 크랭코의 <살라드>, 케네스 맥밀란의 <스핑크스>, 1969년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에서 무대와 의상을 담당했다. 특히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는 서호주발레단, 라스칼라발레단, 제프리발레단, 로열발레단, 산티아고발레단, 볼쇼이발레단 등 세계 여러 발레단은 그녀의 무대와 의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돌턴은 크랭코와 <다프니스와 클로에>, <파인애플 폴>, <숙녀와 어릿광대> 등을 함께 작업했으며, 마르시아 하이데의 <지젤과 윌리들>에서는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작품인 <너의 발끝>에서 마르시아 하이데와 리처드 크레이건의 의상을 디자인했다.

돌턴은 1970년 오페라 디자인을 시작해 오페라 제작자인 존 콕스와 오랫동안 함께 작업을 하며 여러 작품에서 의상과 무대를 디자인했다. 이 중 콕스의 <양치기 임금>은 1989년 잘츠부르크에서 초연되었다. 돌턴은 2004년 영국에서 사망했다.

조명 Light Design



스틴 비야케

Steen Bjarke

스틴 비야케는 약 30년간 코펜하겐 왕립극장에서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피터 샤푸스, 존 노이마이어, 모리스 베자르, 케빈 맥켄지 등과 같은 유명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했다. 분위기와 음악에 맞는 조명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는 타고난 감각으로 전통 덴마크 부르농빌 스타일 작품들을 현대적으로 재안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89년 위르겐 로제가 무대 디자인한 <오네긴>의 조명을 작업했으며, 1997년에는 오슬로와 헬싱키에서 엘리자베스 돌턴이 무대 디자인한 <오네긴>의 조명을 디자인했다. 또한 이 작품은 2001년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재공연되기도 했다. 2001년 덴마크 왕실은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그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프로덕션 스태프

스테이징 Staging



필립 바란키에비치

Filip Barankiewicz

필립 바란키에비치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다. 1986년 폴란드 국립발레학교에 입학해, 1991년 '바슬라브 니진스키 메달'을 수상한 뒤 1995년 폴란드 국립발레콩쿠르에서 일등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누레예프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모나코 왕립발레 학교에서 마리카 베소브라스에게 사사하고 1996년 졸업했다.

그해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 입단했으며 2000년 드미 솔리스트, 2001년 솔리스트, 2002년 수석무용수가 되었다.

프라하 국립발레단과 <백조의 호수>, <말괄량이 길들이기>, <오네긴> 등을 공연했으며, 노르웨이 국립발레단, 라이프치히발레단, 서호주발레단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 뿐만 아니라 강수진, 알레산드라 페리, 알리나 코조카루, 폴리나 세미오노바 등 세계적인 발레리나들과 공연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이후 프리랜서 수석무용수, 게스트코치로 활약한 필립은 2015년에 보르도 국립오페라, 에스토니아 국립발레단과 대한민국 국립발레단으로부터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게스트 코치로 초대되었다. 그해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게스트 발레마스터로 활동하며 레파토리 선정에 참여하면서 윌리엄 포사이스, 이여리 킬리안, 한스 반 마넨, 막시밀리아노 게라의 안무 작품을 지도했다.

2016년에는 마르시아 하이데의 지휘 하에 칠레 산티에고에서 존 크랭코의 <오네긴>을 무대에 올리는 영광을 누렸고, 캐나다 국립발레단의 카렌 케인 예술감독의 초대로 발레단에서 수업 및 지도를 담당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보르도 국립오페라, 몬테카를로발레단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필립 바란키에비치는 2017/2018 시즌부터 프라하의 체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스테이징 Staging



비르깃 데하르데

Birgit Deharde

비르깃 데하르데는 브레멘에서 태어나 함부르크 발레학교(존 노이마이어)에서 발레를 배웠다. 1991년부터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런던 베네시 안무 연구소에서 공부하였다. 1997년부터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상주 무보전 문가로서 기존 작품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들의 무보를 작성하였다. 그녀는 또한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캐릭터 댄서로도 활약하였다.

터키 국립발레단, 라트비아 국립발레단, 헝가리 국립발레단, 노르웨이 국립발레단, 핀란드 국립발레단, 덴마크 왕립발레단, 스웨덴 왕립발레단, 베를린 국립발레단, 취리히 발레단 등 세계 유명발레단의 공연을 지도하였다. 마르시아 하이데, 예곤 마젠 그리고 리처드 크레이건과 긴밀히 작업하며 <로미오와 줄리엣>, <말괄량이 길들이기>, <오네긴>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2009년 이후 프리랜서 무보전문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예술 스태프

단장 겸 예술감독 | Artistic Director



강수진 Kang Suejin

부예술감독 | Deputy Artistic Director



신무섭 Sin Museop

발레마스터 | Ballet Master



박일 Park Il



정현옥 Jung Hyunok

게스트 발레마스터 | Guest Ballet Master



안효진 Ahn Hyojin



이영철 Lee Youngcheol



레나토 아리스멘디
Renato Arismendi

여신의 엘릭서
7일 후의 피부 변화
숨37° 숨마 엘릭서 에센스



su:m 37°

200만 명이 선택한
대한민국 No.1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

“오디오북,
귀찮나게 즐겨보세요”



윌라가 만드는 오디오북의 품격

오직. 전문 성우 낭독으로

작품을
실감나게

단연. 100% 완독본으로

작품을
온전하게

일단. 한 달 무료/무제한으로

작품을
여유있게

지휘



제임스 터글

James Tuggle

제임스 터글은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1972년부터 1976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리츠 츠바이크(Fritz Zweig)에게 지휘를 배웠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 음악원(Mozarteum)에서 오토마르 슈트너(Otmar Suitner)를 사했다.

제임스 터글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샌디에이고 오페라의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1977년부터 3년간 시애틀 오페라의 페스티벌 프로덕션 <니벨룽겐의 반지>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2년 독일 베를린 오페라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뒤 곧바로 지휘자로서 정식 계약 제안을 받아 1983/84시즌에 활동했으며, 이 기간에 유럽 전역에서 연주회를 지휘하기도 했다.

1984년 9월 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음악감독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쁜 지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발레단의 활발한 해외 공연 덕분에 전 세계의 여러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988년 제임스 터글은 안무가 유리 바모스(Yuri Vamos)가 예술감독으로 있던 독일 본발레단으로 거처를 옮겨 함께 활동했고, 이는 1991년 이후 스위스 바젤발레단으로 이어졌다. 1993년 오스트리아 빈 슈타츠오페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뒤 그는 그곳에서 상임 지휘자, 발레단 음악 자문, 오페라단 지휘자로 활약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독일 베를린 코미세 오페와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에서 정기적으로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다.

1997년 제임스 터글은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음악감독으로 다시 돌아와 발레단의 폭넓은 레퍼토리 작품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순회공연의 지휘를 맡았다. 2001년 그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 아메리칸 발레시어터를 지휘했고, 2002년 이후에는 프랑스 파리 오페라발레단, 오스트리아 빈 슈타츠오페,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포르투갈 국립발레단, 홍콩발레단,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페발레단에서 정기적으로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다.

제임스 터글은 발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명 교향곡과 오페라를 포함한 폭넓은 레퍼토리를 지휘한다. 특히 그가 지휘하는 19세기 후반 독일 레퍼토리 연주가 유명하며, 동료 음악가와 평론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1985년에 창단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오페라·발레 등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르며 국내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연 100여 회 이상의 연주로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는 영화부터 게임, 온라인 공연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클래식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국내 오케스트라 중 첫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과 4K 영상과 3차원 다면

입체 음향 녹음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아카이빙을 통해 새로운 감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핵심인 '연주자-작곡-지휘' 세 분야의 미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교육하는 '코리안심포니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작곡가 육성을 위한 '작곡가 아틀리에', 전 세계를 무대로 차세대 지휘자를 발굴하는 'KSO국제지휘콩쿠르' 등 클래식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오상진

★★ 수석 | ★ 부수석 | * 아카데미

대표이사 박선희

악장 이정일 김민균

바이올린 I 이지수★★ 문재원 김나정 손수현 박주희 조진원 박인희 김 정

바이올린 II 박나은★ 강은미 조진이 김은숙 최은주 송은지 허명식 신은진

비올라 이무열★ 정인경 원영석 김성은 양지선 김리경

첼로 이경진★ 박해진 구민주 심은주

더블베이스 이재준★★ 손치호★

플루트 신주연(객원수석) 김지혜

오보에 이인영★ 김수영 *

클라리넷 박정환★ 박시내

바순 표규선★★ 주장현

호른 윤승호★★

트럼펫 이응우★

트롬본 정대환★

팀파니 김한규★★

타악기 조성호 김은정

피아노 고윤진(객원)

하프 정지인(객원)

경영관리팀 최현철(팀장) 이정재(과장) 백세리(과장) 박재현(과장)

공연기획팀 김지혜(팀장) 장민영(대리) 양민지(대리) 임소혜 김경옥(연수)

홍보마케팅팀 조신애(팀장) 홍지혜(과장) 소미영(연수)

공연지원팀 김태식(팀장) 박재균(과장/무대감독) 주재현(무대감독)

국립발레단 이사진 및 자문위원

이사진

명예이사장	이세웅	예술의전당 명예이사장
이사장	허명수	GS건설 상임고문
이사 (가나다순)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신현택	전)문화회 회장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이은영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장선희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전홍조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
허묘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전 총장	
감사	김윤식	회계법인 청담 이사

자문위원

자문위원장	김매자	북경무용대학교 민족무용과 명예교수, 무용월간지 「몸」 발행인
자문위원 (가나다순)	김화숙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무용교육학회 명예회장
	장광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대표
	장선희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허묘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전 총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국립발레단 후원회

후원회 임원

명예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송병준	컴투스-게임빌 의장
자문역	한형석	(주)연이개발 대표
고문	박진원	(주)두산메카텍 부회장
부회장 (가나다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사장
	이은영	서울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후원회원 | 가나다순

고아라	윤관	BRV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윤정선	성보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구원희	한성플랜지 이사	윤현경	(주)동화약품 상무
권지혜	아이에스 지주 전무	이건구	현대에이치티(주) 대표이사/사장
금성혜	민트리온 이사	이경태	이경태정형외과 박사
금한태	(주)텔코웨어 대표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대원	UIB 코리아 부사장	이진욱	대림산업(주) 상무
김명섭	우노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임홍서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세훈	(주)어썬레이 대표	장선하	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김수로	배우	전재범	금강공업 사장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이사	정유리	KBS 한국방송 외신 통역사
김하은		정진호	서울대학교 의대 피부과 교수
레이먼드 정	EOGF Partners, 매니징 파트너/공동대표	조수현	플럼라인 대표이사 & 노던아크리조트 상무이사
문윤희	(주)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	최두준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박경진	진주햄 대표	최명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경호	비오비엔터프라이즈 대표	최수준	로커스에듀 대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하나금융그룹	
박영주	(주)아성다이소 부사장	한상철	(주)제일약품 부사장
배동현	창성그룹 부회장	한승목	
서영범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한이봉	태평양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성미화	e-Ballet shop 대표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승호	(주)P&A	허인영	(주)승산 대표
싱글래티 주식회사		현지호	(주)화승코퍼레이션 부회장
유영석	(주)코빗 이사		

만든 사람들

국립발레단 예술 스태프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부예술감독	신무섭
발레마스터	박일 정현욱 안효진 이영철
게스트 발레마스터	레나토 아리스멘디
국립발레단 부설 발레아카데미	신무섭(교장) 노지영(전임교사) 발레교사 이종은 유수민 김지영 김정은 집나스타프 방은지 피아니스트 정혜연 윤혜정 신슬기 조선미

국립발레단 기술 스태프

기술감독	박창모
무대감독	이영돈
무대조감독	최슬기 문태민
무대팀장	서종민
무대팀	러프(LUFF)(대표 권기찬)
무대스태프	이종필(차장) 진모세 우남길 이혜인 김지은 최민수 박찬양 흥정한 우대진
무대 셋업/철수	이지수 최진석 이철재 김기덕 한진규 김시은 김지일
조명감독	백시원(73 Company)
조명 프로그래머	이수빈
조명팀장	윤영한
조명스태프	심효은 서재연 권민균 한상웅 황종하 서주희 문동민 전규상
음악감독	김종욱
음향감독	박성진
음악코디네이터	김희정 임주은
클래스반주	최선미 권경미 김지현
의상감독	김인욱
의상스태프	정지민 김지련 김기영 한복희 방마리 강정은 피진호
분장감독	박인혜
분장스태프	한정은 이지연 한승희 이현진 고혜진 오하나 이선화 전민지
재활트레이너	고일안 이명재

국립발레단 사무국

사무국장	권영섭
경영관리팀	임오영(팀장) 신현승(차장) 이주영(차장) 이필재 김민희
공연기획팀	오자현(팀장) 이정(차장) 이정원 김민하 유정미
홍보마케팅팀	김현아(팀장) 오유선(차장) 박슬기 최소담 이다정 김태이
예술사업지원팀	심용희(팀장) 장승만(차장) 김원혁(차장) 최태은 이카데미 백송이 홍민지

예술의전당

사장	유인택
예술본부장	박상훈
공연사업부장	양우제
무대운영부장	윤대성
무대 감독	유우식 김상근 권규완 구분형
무대 기계	박진욱 정재현 김승연 김준서
무대 조명	박천일 최우찬
무대 음향	임채홍 한국란
대관 운영	최진숙 김정호
하우스매니저	반민경 이빛나 손민지 신호철 김정현

협력업체

사진	손자일 BAKI
공연영상	BoDA (대표 임정은)
홍보물 디자인	티을시웃히울 (대표 이소재)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대표 곽중철)
인쇄	에이투 (대표 유학기)
옥외 홍보물	서울21(대표 양재석) 애드팝(대표 김병국) ㈜킨비즈커뮤니케이션(대표 최경미)
교정 · 교열	길(GIL)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립발레단은 관객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의견은
국립발레단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답례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

- 1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트위터)에
게시된 '<말괄량이 길들이기>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 클릭 → 설문참여
- 2 인터넷 <http://naver.me/5ux8fBhu> 접속 → 설문참여
- 3 핸드폰 QR코드 리더 앱 다운로드 후 시행 →
아래 QR코드 스캔(이미지 드롭박스 업로드) → 설문참여



Quiz

본 퀴즈를 푸신 후 인스타그램에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국립발레단 #말괄량이_길들이기 #발레 #말괄량이_퀴즈풀이

문제1. 발레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원작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쓴 영국의 대문호,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문제2. 비앙카는 호르텐시오, 그레미오, 그리고 루첸시오의 구혼을 받습니다.
이때 이들은 사랑의 증표로 물건 하나씩을 비앙카에게 건네는데요.
다음 중 비앙카가 받지 않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 ① 부채 ② 장갑 ③ 장미꽃 ④ 손수건

문제3. 페트루키오를 앞세워 루첸시오, 그레미오, 호르텐시오는 가정교사로 위장해
밥티스타의 저택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자수 ② 음악 ③ 무용 ④ 가창

문제4. 카타리나와 페트루키오는 결혼식을 마치고 페트루키오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이들은 무엇을 타고 페트루키오의 집으로 향할까요?

- ① 소 ② 마차 ③ 말 ④ 낙타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2021 국립발레단 제186회 정기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기념해 보세요!

관람일 : 2021년 6월 일

감상평

물속에서 그의 꿈은 자유로워진다

서울체고 3학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2020년 그는 자유형 100m에서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자유형 200m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 주니어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제 그의 꿈은 더 큰 무대를 향한다

도쿄를 넘어 파리까지
꿈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는 황선우 선수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B금융그룹


서울체고 수영선수, 황선우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KN_BALLET

 /kballet1962

 /kballet1962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